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하늘이 무너진대도 자기 믿어야”

여러분께서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절에 나가서 기도나 하고 또 다녀가기만 하면 되려니 하고 생각하시지만 이 공부는 그렇게 하찮은 공부가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공부이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절에 와서 스님을 못 만나고 간다고 해서 스님네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결부가 안된다고 생각지 마세요.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속에는 통신처가 다 있어서 일체제불과도 통신이 되게 되어있고, 절에 왔다 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일체가 다 아는 까닭입니다.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인공을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 볼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



그림 · 최주현

안팎경계 대하는 방법

문 저는 얼마전에 운전을 하다가 6만원짜리 범금을 내게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화를 냈더니 그 다음에는 10만원짜리를 내게 됐고 그다음도 돌려놓지 못하니 다음엔 30만원짜리 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45만원짜리가 터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연속으로 생기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변연히 일면서도 안들려 놔주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아,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되었지만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안팎의 경계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화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고
그냥 갈 뿐이고
그냥 디딜 뿐이고
움직여릴 뿐이니
남는 것이 없어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오래 다녀거나 처음 왔거나간에 한번 일러준 것을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은 좀 쉬운 것 같어요.

문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면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게는 바로 그런 점에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돌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도 주인공 너가 한 거지.’ 하면서 그 상대방이 덕으로 인해서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가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한다면 30만원이고 45만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에 끝날 것을 두 번 세 번까지 거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픈 병이나 낫자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누구나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싹은 바로 자기 뿌리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상대를 보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지 말라.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너의 내면에, 너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면공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공이 색이 색이 공이라 한 뜻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자긴 빠지고 주인공에 놓아야 물리 터져 “내 생각 남 모를줄 알면 어리석은 겁니다”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고, 그냥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직여릴 뿐이니, 남는 것이 없어요. 때에 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놀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놀이 지금 현실에 걸고 있는나는 애깁니다. 어떤 놀이 움직여지고 있는나, 보고 있는나, 듣고 있는나, 어떤 놀이 그렇게 하고 있는나를 애깁니다.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것을 잘 알아서 실천토록 하십시오.
법회에 나오는 마음자체

문 보통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병이라든가 가정의 우환 등 주변의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나오시는 분이 많고 봅니다. 처음엔 초발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오래 다니다보면 법회에 안나오면 그냥 좀 서운하고, 또 이익이 있고 그냥 좋으니가 다닌다는 분도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근본자리를 밀도록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오시든지 나오시는 건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도 천차만별로 마음의 차원은 있죠. 그것은 앞서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죠. 어떤 차원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든 나를 다지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건 모두 같습니니다.

일거수 일투족이 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하죠. 그 속에는 정은 것 마른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또는 좋은 것 나쁜 것, 높은 것 낮은 것 등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잘 생각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근심 걱정을 해가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인의롭고 여유있고 지혜롭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 써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어디서나 남을 탓하지 않고 나로 돌린다면 저절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위로는 상세계에 통신이 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같이 더불어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허공에 꼭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남이 모른다고 생각을 한 그 생각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써 하면 모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체만물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이롭게 생각을 내준다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때도 다 이롭게 살려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한손입니다. 한마음 한손! 한발로 밟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또 들지 않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둬두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세생생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꿈에 할머니가 목을 조여

문 저는 마음 공부부터 2년 됐습니다. 몇 달전부터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음을 증명해 봐.’ 하고 관한 것 했지만 저에게는 주인공이 나타나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식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증명해보라고 하면서도 영 믿지지가 않아서 한달전부터는 잠자기전에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 밤엔 꿈인지 생사인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 물었는데 제가 무시했더니 제 목을 졸랐고, 또 어느날 새벽엔 갑자기 문밖에서 희소리 바람이 불고 가스렌지에 갑자기 불이 켜지고 제가 막 빨려가는 느낌이 들어 소리치니까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약간 신경쇠약증세가 와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상기된 얼굴에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74

마음의 끈이 풀리면 얼었던 삶도 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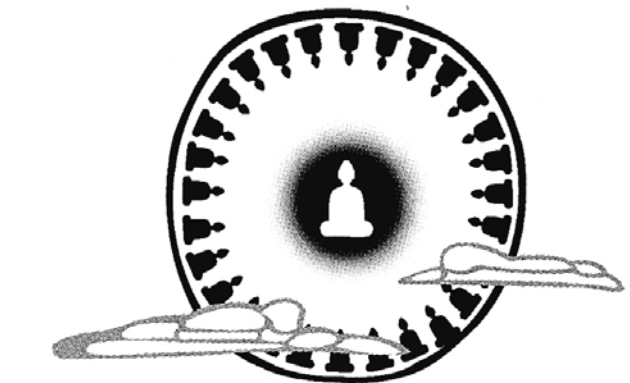
“세상 천지가 내 것이기에 내 소유 아닌 게 없고, 내 것 아닌 게 없기에 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할 것이 없다. 그대로 진정한 물이 되고 도는 것 같고 화창한 봄날에 꽃이 만발한 것과 같은 것이다.”

가지려고 하면 가질수록 불안해진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편안해진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나누려하면 오히려 내 것이 줄어든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소유하려는 좁은 소견을 털어 버리고 자유롭게, 다 소유하며 산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좁은 유리병 안에 갈려서 밖을 바라보며 내 것 네 것에 애태우게 된다.”

소유는 구속이다. 집착은 족쇄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소유 당하고 내가 붙잡히는 것이다. 가령 그 대상이 돈이라고 하자. 내가 벌고 내가 갖는다고 하지만 일단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는 알

게 모르게 돈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 누가 헛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내 손을 떠나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된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도 그렇다. 일단 내 것이다 싶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게 마련이다. 대상이 사람인 경우도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가 늘 함께 해주고 늘 같은 마음이기 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는 비탄에 젖고 괴로와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걸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데 왜 떠나보낸단 말인가. 사랑하는 만큼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랑이란 곧 서로를 묶는 끈이요 서로의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묶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게 참다운 사랑일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가령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면 그가 자유인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제 삶을 살게 하라. 이런 말이 있다. ‘젊은 이가 겪게 되는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자비심 많은 어머니를 갖는 것이다.’ 자비심 많은 어머니는 자녀의 독립을 가로 막고 자녀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그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 그 누구를 자유롭게 하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돈이 제 걸걸을 가게 하라. 소유는 자유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는다해도 그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그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든 바라지 말고 버려라. 그를 풀어 주라. 그를 풀어주면 나의 족쇄도 풀린다. 그를 풀어주지 않고 나만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착과 탐욕은 어떤 경우라도 나의 노비문서요 그것의 족쇄인 것이다.

그것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와 그것을 묶는 끈, 애착과 탐욕을 끊으라는 것이다. 그 일이야말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삶인 것이다.

진정으로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내 삶에선 내가 주인이다. 주인인 내가 그 무엇에 묶여서, 그 누구에 묶여서 산다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요 노예인 것이다. 코뚜레에 케인 소나 목줄에 묶인 번견(番犬)과 무엇이 다르랴.

몸을 풀어주라는 게 아니다. 일부터 버리라는 게 아니다. 끈은 마음의 끈이다. 내 탐욕의 끈이요 나의 집착이 끈이다.

마음으로 풀면 된다. 마음이 풀리면 삶도 풀린다. 얼었던 강이 녹듯이 삶의 강물도 녹는다. 강물이 풀리면 배가 오고 님의 소식도 올 것이다.

협찬 : 김남운